국가전략, 제27권 3호 2021년 가을호, 105~131.

중·러 군사협력 변화와 동북아 안보 영향 연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을 중심으로

송 재 익*

❖ 요 약 ❖

21세기 들어 미중의 경쟁시대에 중·러는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연합작전훈련 수준으로 해상 및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 역학 관계 변화 속에서 중·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를 지정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최근 중·러의 밀월 관계 의도를 파악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된 영향을 토대로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중·러는 2005년 '평화의 사명'을 시작으로 매년 또는 한해 걸러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해상연합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러의 '동방-2018'훈련에 몽골 등이 참여하며 다자 연합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중·러 군사훈련은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4월에는 칭다오(青島) 인근에서 해군 합동훈련, 7월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비행훈련, 9월에는 러시아 병력 12만 8000명을 동원하여 '중부-2019'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군도 참여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폭격기,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들이 동해상에 만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였으며,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7분 동안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 중국 정찰기 1대가 KADIZ를 무단진입 하였으며, 2020년 12월 22일에는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향후 중·러는 더욱 군사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대선과 한미일 공조를 시험하기 위해 2021년 후반기 및 2022년 전반기에 KADIZ에 대한 추가 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중·러는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작전 수준으로 한국 및 동북아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중·러 관계, 군사협력, 지정학, 동북아 안보, 한반도 3차원 시각

DOI: 10.35390/sejong.27.3.202108.005

* 한양대학교 융합국방학과 교수,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Ⅰ. 서론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러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양국 간의 연합작전 수준으로 훈련을 진행되고 있으며, 해상과 공중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칭다오(青島) 인근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하였고, 7월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비행훈련을 하였으며, 9월에는 러시아가 병력 12만 8000명을 동원하여 '중부-2019'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군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중·러 정찰기, 전투기 및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동원하여 연합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1]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였다. 2019년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연합 및 단독으로 KADIZ를 무단 진입한 사례는 20여 차례에 달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 오전 8시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다가 오후 3시에 이탈하였다. 중국 군용기는 진입 전 우리 측에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내용의 교신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 15대는 아무런 교신 없이 무단으로 진입했다. 우리 군은 F-15, KF-16 등을 출격시켜 전술조치를 하였다고 합참은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20/12/23).

이 시기에 중·러가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되면서 경제발전을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 지도자들이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시진핑은 자신감을 드러내며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항공모함 진수, ICBM 개발, 핵잠수함 건조 및 우주에서의 위성요격 미사일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18년 제2기 체제를 굳건히 하며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판 세계화라 할 수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및 남중해 영유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도 푸틴이 2018년 6년 임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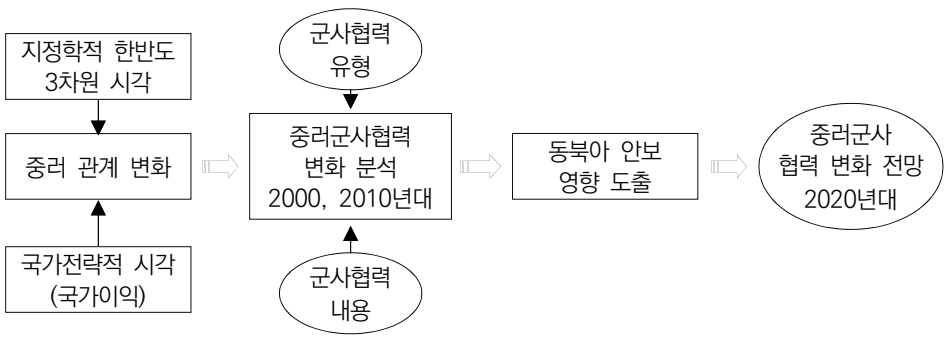
1)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국가의 영공은 아니지만, 해안선에서 12해리(약22km)까지의 상공으로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주권이 인정된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무단 침범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따라서 상대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비행정보(목적, 경로 등)를 상대 국가에 전달하는 것이 통례이다.

정권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전략에 도전하며 중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세계 중심축을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전환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도양까지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더 확장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쿼드(The Quad) 즉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반중 연합협력체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일본과는 유사한 통합연합작전지휘체계로 발전시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 역학관계 변화 속에서 중·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를 분석하여 최근 중·러의 밀월 관계 의도를 파악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하며, 도출된 영향을 토대로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변화를 2021년 후반기와 2022년, 그리고 2023년 이후를 전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먼저 중·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3차원 시각과 동북아 지역의 국가 전략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군사협력 내용들을 정립한 후에 2000년대 및 2010년대 시기별로 중·러 간의 군사협력 형태 및 내용의 현황 확인을 통해 군사협력 발전 상황을 분석하고,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전망을 분야별 및 시기별로 제시하였다.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접근개념도는 아래〈그림 1〉을 참조한다.

〈그림 1〉 연구 접근 개념도



Ⅱ. 3차원 시각의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

1. 한반도의 지정학과 3차원의 시각의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인간과 주변 환경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국가 역시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아 인간처럼 소멸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를 지리생태학적 요소에서 정치학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지정학이다(이혁섭 1991, 83-92).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웨덴의 지리학자인 루돌프 켈렌(Rudolf Kjellen)이었다. 켈렌은 인간, 국가, 세계를 각기 전체 유기체적 개별단위로 보면서, 국가는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로 간주되면서 인간처럼 성장하고 소멸하는 살아있는 집합체적 유기체(Aggregate Organisms)로 본 것이다. 이는 다윈이론에 나타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생존을 위한 냉혹한 투쟁에 몰두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국가들은 생존하기 위해 주위 공간을 중심으로 적응하며 유기체처럼 잘 적응하면 생존하고 번영을 누리며,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에 연결되어 일본열도에 둘러싸여 있다. 즉 대륙세력(Land Power)과 해양세력(Sea Power)의 경계에 있는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것을 지정학적 시각에서 보면 대륙세력이 대륙을 통일 후 세력이 커지면 서태평양 해양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수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몽골의 고려침공, 청나라의 병자호란이다. 또한 해양세력이 흥하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임진왜란이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중일전쟁으로 나타났다. 즉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타 지역으로 세력 확장 시 반드시 거쳐야하며 이러한 한반도는 교량, 병참기지 역할 및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최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남중국해 분쟁은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 미국 및 일본의 패권경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전도사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지정학은 작동되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힘을 통한 것으로 세계화 시대의 지정학을 강조하고 있다(토마스 프리드만 지음, 신동욱 옮김, 2002, 791).

2. 한반도 중심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형성

탈냉전체제 이후 세계는 자유주의 및 상호의존을 증가시키며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갈등과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신냉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즉 최근의 동아태 지역의 정세 변화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남북 대결의 한반도(트랙 1)와 역사문제 및 영토분쟁으로 갈등과 군비경쟁이 증대하며 중·일간의 지역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양상인 동북아 지역(트랙 2),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이 경제적 협력보다는 국가이익 및 패권 추구를 위해 대결하는 동아태 지역(트랙 3)으로 3개의 트랙에서 갈등과 대결을 이루는 국제정치질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개의 트랙에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상, 해상 및 공중 군사협력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 한미일 관계가 있어, 특히 한일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문제, 한미 간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문제 등이 불거지며 미국 정부 고위자가 한반도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2] 특히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 관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의 특징으로 한반도에서는 남북간,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일간, 동아태지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계기(Trigger)가 되어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무력충돌을 관리 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

2) 퍼펙트 스톰은 기상학적 의미로 1936년 미 텍사스주의 포트아서뉴스라는 매체의 보도를 통해, 당시 발생한 풍수해를 설명하면서 "열대성 저기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결과"라며 Perfect Stor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금과 같은 은유법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미국 언론인이며 작가인 세바스찬 정거가 출간한 논픽션 'The Perfect Storm'과 2000년 개봉된 같은 이름의 영화를 통해서였다. 기상 용어가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Ⅲ. 중·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 및 발전 동인 분석

1. 중·러 군사협력 추진 현황: 2000년대, 2010년대

중·러 군사협력은 1990년 탈냉전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유엔안보리 결의 하에 주도하면서 중러의 군사협력은 발전하게 되었다.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은 중·러 외교관계 속에서 어떻게 군사협력을 추진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협력 유형과 내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중러의 군사협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하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을 1990년대 상황을 고찰하여 2000년대 및 2010년대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군사협력 유형 및 내용

군사협력은 잠재적 적대국가와의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확전을 제한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의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군비통제의 하나인 운용적 군비통제로서 군사협력을 실시한다. 즉 운용적 군비통제는 상호 국가간의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여 전쟁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군사적 협력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원균 2019, 221). 또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교범10-2 2014, 79)에서는 군사협력을“공동의 적 또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군사적인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협력은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공동의 위협에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국간의 군사 분야에서 협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협력의 유형은 군사동맹, 군사협조, 군사교류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은 국가안보 목적의 정치적 공동행위에 대해 제도적 장치나 조약을 통해서 국가 간에 맹약하는 국제협정으로 2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집단방위체제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군사협조(Military Entente)[3]는 국가방위 목적의 특정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간의 안보협조 관계로 공동의 적이나 위협에 대하

3) Entente는 불어로 정부 간의 협정, 협상, 협상국을 의미한다.

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군사협조는 군사동맹과 비교하여 양국 간의 의무나 조약을 반드시 내포하지 않는 군사적 지원이나 원조와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는 군과 관련된 인사, 정보, 과학기술, 체육, 문화 활동 등의 왕래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 증진을 위한 양국 간의 대외활동으로 정의되어진다. 군사교류는 공동의 적이나 위협을 가정하지 않고 신뢰증진을 위한 군사협력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군사교류는 상호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을 의미한다. 군사협력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군사협력 유형

구분	조약/의무	공동의 위협	신뢰구축	협력의 강도
군사동맹	○	○	○	강
군사협조	×	○	○	중
군사교류	×	×	○	약

* 출처: 박원균, "한중 외교관계 변화에 따른 한중 군사협력 증진 방안", p.222.

앞에서 제시한 군사협력 유형에서 군사협력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내용으로는 작전운용, 인사교류, 군수 방산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군사협력 형태별로 상호 협력내용에 차이가 있다. 먼저 군사동맹 수준에서는 작전운용에 있어 조약 군사력의 파견 또는 주둔, 연합 군사훈련, 협의기구 구성, 군사력 운용의 비용분담, 군사정보 교환, 군사작전 및 교리의 공동연구를 실시한다. 인사교류 분야에서는 주요인사 교환방문, 무관교환, 군사교육훈련 교류, 군사훈련 참관, 군사사절단 교환방문 등의 교류를 실시한다. 군수방산 분야는 군사원조, 군사과학기술 교류와 공동연구개발, 방위산업협력, 군사교역 등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군사협조 관계는 인사교류 분야와 군수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군사동맹 수준과 유사하게 군사협력을 실시하지만 작전운용 분야에서는 군사동맹과 달리 공식적인 조약관계와 군사력의 직접적인 운용, 군사훈련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전운용 분야에서 연합 재해재난훈련, 사고대응 훈련 등 인도적 목적의 군사훈련은 실시하는 단계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끝으로 군사교류 관계는 군사협력의 초기 단계로서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적인 인사교류에 국한한다. 군사교류는 군사

협력의 목적에 따라 인사교류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군수방산 분야로 확대되어 군사협조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양국의 관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작전운용 분야로 확대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박원균 2019, 222).

2) 중·러 군사협력 추진 현황 및 분석

중러 군사협력은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국가연합(CIS)에 형성되었다. 1990년대의 중·러는 상대를 우호국가(1992)-21세기를 향한 건설적 동반자 관계(1994)-평등과 신뢰에 바탕을 둔 전략적 동반자 관계(1996)-국제정세에 대한 같은 시각과 인식을 공유 확인과 일부 중대사건 문제에 대해 일치된 입장(1997) 등 4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지역협력기구로서 1992년 카자흐스탄이 주도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에 중·러가 참여하였으며, 1992년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의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주도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는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0년대는 중·러의 군사협력을 형성하기 위해 중·러의 정상들이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상대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시도 수준에서 군사교류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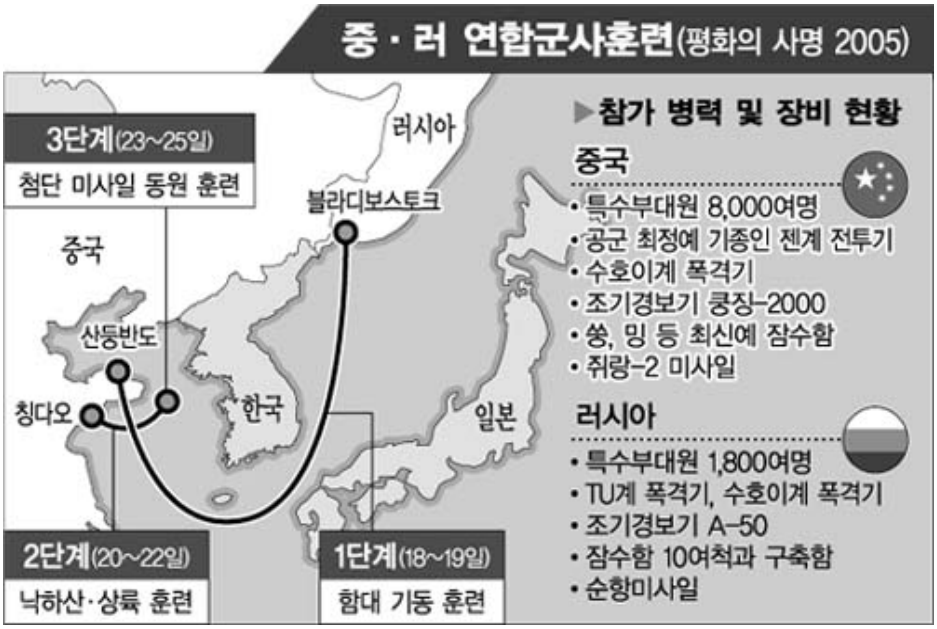
(1) 2000년대 군사협력: 발전단계

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2001년 '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의 기초를 완성하였다. 1990년대의 공동성명 보다는 국제법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여 의무와 이행을 강조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 중·러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견제하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면서 양국 협력은 다시금 더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인접한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체제를 인식하고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출범시켰다. 200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행사에 참석하는 도중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동년 6월 30일

다시 모스크바에서 만나 푸틴과 "중·러 양국이 다극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존중, 인권의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등을 합의한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1972년 미소가 체결한 탄도요격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협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2002년 6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하여 ABM협정은 영구 폐기되었다. 미국이 ABM협정을 탈퇴하는 것은 중국이 핵탄두 ICBM 확보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ABM협정은 미소 간에 핵탄도미사일 방어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하는 협정이지만 중국은 이해 해당되지 않고 ICBM을 개발하고 실전배치 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중·러 양국은 2004년 10월 '중·러 국경 동쪽 지역 보충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민감한 국경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2006년 6월에 중·러 양국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러 국경에 관한 보충협정' 비준서를 교환하며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4,300km의 국경분쟁을 일단락 하였다.

2000년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보면, 2005년 군사협력의 최고 단계인 군사동맹 수준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합훈련의 성사 과정을 확인해보면, 2004년 7월 6일 궈보슝(郭伯雄)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이바노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평화 사명-2005 관련 비망록'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그 후 2005년 2월초 러시아 육군 부총사령관인 볼가코프 상장이 이끈 육군 참모장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가졌으며, 3월 17일 러시아 연방 총참모장 발루예프스키 대장의 중국 방문 이후 훈련과 관련한 준비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드디어 8월 18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량광리에(梁光烈) 상장과 러시아의 발루예프스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러 연합군사훈련은 정식으로 개시되어 8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중·러 간 최초의 연합훈련이었다.

〈그림 2〉 중러 연합군사훈련 '평화의 사명-2005' 현황



* 출처: 경향신문 2005/08/18

'평화사명-2005' 중·러 연합훈련은 위〈그림 2〉처럼 러시아 극동과 중국 산둥반도에서 양국으로부터 1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중국 측의 병력은 총 8,500여 명 그리고 러시아 1,8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최정예 부대와 장비들이 참가하여 훈련은 3단계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평화사명-2005' 연합훈련에서는 중러는 30여 척의 구축함 및 잠수함을 동원하여 해상 봉쇄와 대규모 낙하훈련 및 상륙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00여 발의 각종 미사일 실제 발사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방어, 공격, 포위, 기습, 점거, 진지구축, 후퇴 등 7가지 유형으로 전개되며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평화 사명 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2년 단위 혹은 격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다자적 협력기구인 SCO가 중국 주도로 설립되어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여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적 안보기구로서 역할과 집단안보방위체제로서 연합 군사훈련을 중·러가 주도하고 있다.

(2) 2010년대 군사협력: 심화단계

중·러는 2011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 러시아는 2012년 푸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며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하여 재집권하였으며,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을 시작하며 국방예산은 일본에 4배 가까이 많고 해군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런 자신감으로 시진핑 주석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강군전략으로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목표로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 중국은 일방적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수준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출범시키며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결속시키는 기구를 설립하며 지역기구를 안보기구화 하였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2016년 1월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 창구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하였다. AIIB는 회원국이 77개국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확인한 후,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동북아지역을 넘어 국제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 및 서방세계의 제재에 반대하고 북한을 옹호하며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계가 동맹화 및 경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010년대 중·러의 군사협력은 중·러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중러 간의 '평화 사명'훈련은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까지 이어지며 계속되었다. 특히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CICA에서 '신아시아 안보관(New Security Concept)'를 발표하자 러시아에서 이에 대한 즉각 지지 발언을 표명하였으며, 중·러는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합동 해상훈련을 개최하였다. 2012년 중국 칭다오 부근에서 '해상연합(Joint Sea)-2012'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인접한 해상에서 두 나라 함

정 14척, 잠수함 2척, 헬기 9대와 특전부대 등이 참여하는 '해상연합-2014' 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 5월에는 '해상연합-2015'라는 이름으로 지중해 해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8월에는 중·러의 수상함, 잠수함, 해군 항공기, 수륙양용 수송차, 상륙정, 헬리콥터가 참여하여 중·러 간에 이루어진 훈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연합-2015' 2단계 훈련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서 실시되었다. 2016년도에도 중·러는 해상연합-2016을 9월 8일 동안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해상군사훈련을 하였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중·러 연합해상 훈련 기간에 미국 해군도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태평양 상에서 2006년부터 실시해온 '용감한 방패' 훈련의 일환인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중·러는 2017년에는 '해상연합-2017' 연합훈련을 발트해에서 실시하였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해군이 지중해를 넘어 발트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동년 9월 중순에는 동해와 오호츠크 해에서 합동연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이 최근 아덴만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동아프리카 전략적 요충지인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한 것과 이번 훈련이 맞물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대양해군 육성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 즉 군사굴기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훈련에 대해 서방국가 측에서 중국 해군의 확장 노력에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군사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은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문 앞에서 진행하는 연합훈련 규모 및 횟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4] 2018년에는 러시아와 중국군은 '동방(Vostok)-2018' 훈련을 실시하였다.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동부군관구 내 9개 훈련장과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일대에서 대규모 전략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일주일간 일정의 훈련은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연합군사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1년 '자파드(서방)-81' 훈련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5] 이번 훈련에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군이 참여하는 다자연합훈련으로 진행되었다.[6] '동방-2018' 훈련은 '평화 사명' 훈련에 비해 훈련 수준이 한층 높고 규모가 더 크며 훈련내용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그리고 중·러는 9월

4) 〈연합뉴스〉, 2017. 7. 20.
5) 〈중앙일보〉, 2018. 9. 11.
6) 김규철 외, 『2018 Russia Report』, (서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9), pp.124-125.

16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의 중부 오렌부르크주에서 '중부-2019'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참가했다. 이번 중부-2019 훈련은 역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군이 미군과 나토군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19년 5월에, 중·러는 산둥성 칭다오(青島) 앞 서해 수역과 공역에서 '해상연합-2019'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상에서도 동방-2018 연합훈련에 이어 참가 병력 및 장비 그리고 훈련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며 중부-2019 연합훈련을 하였다. 이렇듯 중·러 양국은 공고한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그림 3〉 중러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및 독도영공 침범 상황



*출처: 연합뉴스 2019/07/23.

특히 주목할 것은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정찰기, 전략폭격기, 조기경보통제기가 동해 상공에서 만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사실이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러 군용기 19대가 동해상 KADIZ에 0800시부터 1500시까지 진입했다가 이탈하였다.[7] 이런 사례는 훈련 수준을 넘는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중·러가 한국 및 한미일 방어 의지, 능력 등을 시험하는 의도를 가진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7) 참가한 전력은 중국의 전략폭격기 H-6K 4대, 러시아의 Tu-95MS 전략폭격기, A-500공중조기경보기, 녀-35 전투기를 포함 15대로 총 19대가 참가하였다.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문제는 앞의〈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러가 연합훈련을 넘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안보에 위협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2. 중·러 군사협력 발전 배경 및 동인 분석

먼저 중·러 군사협력 발전 배경이다. 중러 군사협력 내용을 보며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단계, 방산협력, 연합군사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중러의 군사협력 발전 배경으로는 첫째, 미국 주도 세계질서 추진과 미중 패권경쟁 심화이다. 냉전시대 이후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의 일방주의(1강 다극체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서 중·러가 밀접한 관계가 발전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중국은 2011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회기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태평양통합군사령부도 인도태평양통합군사령부로 변경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신자유주의를 배제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면서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미·중 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정치체제가 다른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시켰으며, 중·러는 주요 무기를 수출과 기술이전 및 연합합동훈련까지 할 수 있는 준 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배경이 되었다.

둘째, 지정학적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형성의 경직화 현상이다. 지정학적 시각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국가이다. 경제력 확보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대륙세력에서 안주하지 않고 해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시진핑이 강력히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이다. 나아가 중국은 국방비를 증액하며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진수하고 핵잠수함 등을 포함하여 해군전력을 급속하게 증강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 제1도련, 제2도련 및 제3도련을 설정하고 서태평양 지역으로 해군력을 확장하고, 특히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자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은 해상병참선(SLOC) 보호 및 해상 자유항행의 위협을 느끼고 미국과 일본은 더욱 강하게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나아가 미국이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중국 포위전략을 추진하자 중·러는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중·러 간에 군사협력 수준도 준 동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중·러 국가 전략적 인식 일치로 다극체제 추구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체제 다르지만 국가전략을 추구하는 전략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중·러의 대외적 조건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구조를 거부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러시아의 강대국 회복을 위한 경제력 발전은 대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정책이며 중·러는 다극체제를 원하고 있다. 중·러의 국내적 조건에서도 서로 상대국이 국가이익에 일치하며 중·러는 정치외교뿐만 아니라 군사협력 면에서도 상대가 필요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소련시대의 군사과학기술을 이전받아야 하는 목표와 러시아 역시 중국의 자본력이 시베리아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국과 연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동인 분석 결과로는 첫째, 안보적 동인으로 지정학 및 다자적 협력기구의 세계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시각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국가이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30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러 양국은 인접한 대륙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의 해양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으로 연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러 간에는 연합훈련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접한 행상에서 '해상연합-2014'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 '해상연합-2015'를, 2016년에는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2016' 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 '해상연합-2017' 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해양굴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동인으로 중·러의 에너지 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이익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중·러는 인접한 국가로서 갈등보다는 협력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동하는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인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상호 유리한 조건이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19년 12월 2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를 잇는 천연가스 공급관인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이 정식 개통됐다. 앞으로 30년간 러시아는 중국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4%(2018년 기준) 가까운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한다. 중국은

30년간 가스를 공급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4,000억 달러(약 470조원)를 지급한다. 중·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 '에너지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19/12/03). 이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 유럽으로 가던 가스 수출이 막힌 러시아의 가스가 중국과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중·러가 더 밀착하는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셋째, 군사적 동인으로 중·러 국방현대화 및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 및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하다. 아직 중국의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은 러시아에 못 미친다. 현재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의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중·러 간의 군사협력 증진은 중요한 동인인 것이다. 특히 연합훈련은 자국 군대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 전략 및 전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재 가상 적국에 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 打勝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정재흥 2019, 2).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Ⅳ. 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1. 중·러 군사협력 한계와 2020년대 전망

중·러 군사협력은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동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러 관계는 한계점 및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중·러의 군사협력에 있어 한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러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2020년대 군사협력이 발전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중·러 군사협력에는 한계점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 지리 및 역사적 한계이다. 지리적으로 4,300km의 국경의 거리는 항상 침

입의 위협을 안고 있으며, 중국의 기본사상인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전쟁과 분쟁의 역사(1969년 우수리강 국경지역 군사적 충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보는 인식이다. 19세기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Mikhail Bakunin)이 '황화론(Theory of the Yellow peril)'으로 중국 위협론을 처음 제기한 것처럼 러시아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의 냉전시대에서 1956년 흐루시초프가 등장하며 대미 평화공존을 추구하자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소련은 중국을 보고 '교조주의'라며 갈등을 빚었다. 1958년 대만해협 위기 시에 소련이 중국의 무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으며, 1962년 중·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국경분쟁 시에 소련의 인도 지지는 중·소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러 간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다.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

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최재덕 2019, 124).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1년 후반기와 2022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국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그러나 푸틴 집권 2기

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 '평화의 사명' 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 '해상연합-2014'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 '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2016' 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 '해상연합-2017' 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

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1년 후반기와 2022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2021년 후반기 특히 10월 이후는 대선정국으로 들어간다. 국론은 분열되고 후보자들의 대외정책 발언으로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1년 후반기와 2022년에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2. 중·러 군사협력의 한국에 대한 함의와 동북아 안보 영향

중·러의 군사협력 함의와 동북아 안보 영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러 군사협력 한국에 대한 함의이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의 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8] 중·러의 연합합동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의 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

8)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외교 고위급 회담이 2021년 3월 18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렸다. 미국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치 참석하고, 중국측에서는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하였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신장, 홍콩, 대만 등의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양제츠 정치국원은 대만 등 중국영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맞받아치며 미중 대화는 충돌하였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중국을 3월 22일부터 23일 방문하여 "중러는 미국의 패권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하였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중러는 의도적인 밀착이 강화될 것이다.

용하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의 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다. 중·러 군사협력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 요소로 세력균형이론으로 세력균형이 전쟁을 방지한다는 요인이다. 최근 중·러의 군사협력이 동북아 안보 및 한국안보에 긍정적인 요소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한반도 및 한국은 냉전시대에 전쟁을 방지하고 경제력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미소 냉전체제가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다. 즉 세계질서가 다양화하면 복잡해지고 불안정해져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 미중 양대세력에 의해 양진영으로 구분되어지는 미중 신냉전체제는 세력균형이론에 의하면 안정적이고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구도로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부정적 요소로 세계질서의 경직성 강화로 신냉전체제가 부활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러 군사협력 강화가 미중의 양대 진영으로 되어 세계질서가 양극체제로의 경직화를 우려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와 중국의 국방백서를 보면 상대국을 자국 이익에 해를 가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시대 기존 스파르타와 부상하는 아테네가 전쟁에 돌입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같이 미중 경쟁에서 미중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V. 결론

21세기는 미중이 패권을 다투는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남북 분단의 한반도는 신흥세력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보통국가화를 주장하는 일본이 지역 패권을 다투는 동북아시아지역, G2 대결의 지구촌 이라는 3차원의 중심에 있어 퍼펙트스

톰(Perfect storm)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격랑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 중·러는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준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중·러의 군사협력 변화를 보면, 냉전시대에는 중소 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역사 속에서, 냉전시대의 소련은 러시아로 변화하며 독립국가연합(CIS)을 탄생시켰다. 탈냉전시대인 1990년대는 중·러 군사협력이 형성단계로서 중·러가 공동성명을 통해 우호국가에서 동반자 관계로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때는 미국주도의 국제질서 속에서 걸프전을 보면서 중·러는 군사교류 수준에서 방위산업 협력을 추진하며 상호 신뢰구축 수준에서 협력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에는 중·러 군사협력이 발전단계로서, 방위산업 협력이 증대되고 대테러 수준의 '평화의 사명' 연합훈련과 해상연합 연합훈련을 시작하였다. 연합훈련이 계속되면서 연합훈련 규모, 장소, 훈련 내용도 낙하훈련 및 상륙훈련 등이 보강되어 발전되었다. 2010년대에는 중·러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단계로서 연합군사훈련이 확장되고 내용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연합 군사훈련은 중·러가 교대하며 주도하여 규모도 커지고 가상 적을 상정한 시나리오 훈련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중·러는 2019년 7월에 정찰기, 전투기 및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통합운용하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IDA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였다. 또한 러시아 군용기인 정찰기가 8월, 10월, 11월 등 KADIZ를 무단 진입한 사례가 20여 차례 발생하였다. 2020년 3월 25일에 중국 정찰기 1대가 KADIZ를 무단진입 했다. 우리 군이 직통망으로 항의하자 중국군은"통상적인 군사활동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도 8월 19일 20분가량 동해상 독도 인군 KADIZ를 무단진입 하였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 중·러 군용기 19대가 오전8시부터 오후3시까지 동해상 KADIZ에 무단진입 했다가 이탈하였다. 이런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독도 침범은 연합훈련이 아니라 연합 군사작전인 것이다. 이런 행위는 한국의 방어 의지를 무력화 시키고 한미일 공조체체를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동북아 및 한국 안보에 심히 위협되는 수준이다.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첨단 과학기술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은 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 하였다. 2013년 9월에는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이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스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이 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투 고 일 : 2021. 04. 27.
심사완료일 : 2021. 05. 12.
게 재 일 : 2021. 08. 30.

참고문헌

국방부. 2018.『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그래이엄 앨리슨 지음, 정혜윤 옮김. 2018.『예정된 전쟁』. 서울: 세종서적.

김권용. 2010. "탈 냉전기 러시아-중국 협력에 관한 연구: 러시아의 원인 인식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김규철. 2019.『2018 Russia Report』.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김경민. 2017.『동북아 평화의 꿈』. 서울: 새로운사람들.

김덕주. 2015. "최근 중러 관계의 현황과 전망"『주요 국제문제 분석』국립외교원

김태호. 1998. "중러 군사협력과 동북아 안보"『전략논총』 제9집 서울: KRIS.

존 J. 미어셰이머 지음, 이춘근 옮김. 2017.『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김앤김북스.

박원균. 2018. "한중 외교관계 변화에 따른 한중 군사협력 증진 방안"『한국군사학 논총』 제7집 제2권 미래군사학회.

베리 부잔, 레네 한센 지음, 신욱희 옮김. 2010.『국제안보론』. 서울: 을유문화사.

서보혁. 2011. "북중러 3국의 협력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질문"『통일과 평화』 제3집 제3호.

시인홍. 2019. "중국의 세계전략 변화 개관"『미중수교 40주년: 동아시아 안보 상황 평가와 한국의 전략』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심경욱. 2006. "중러 전략연대 강화와 한반도"『전략연구』 제23권 제2호.

안기현. 2019.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전략으로부터 인도태평양전략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우정엽. 2019.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안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심으로"『KIMA FORUM』 통권 제30호.

윤익중. 2015. "러시아-중국 간 신 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중소연구』 제39권 제3호.

이춘근. 2016.『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서울: 김앤김북스.

전병곤. 2017.『뉴노멀 시대 미중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통일연구원

정은숙. 2007. "중러 군사협력: 현황, 동인, 한계",『세종정책총서』.

정재흥. 2018. "2018년중국정세와 한중관계평가, 2019년 전망",『정세와 정책』.

_____. 2019. "2019 중국 국방백서 분석과 평가",『세종정책브리프』.

정호섭. 2019. "미국의 서태평양 전역구상과 한국",『Kims Periscope』, 한국해양전략구소.

존 베이리스, 그레이 지음, 김일수 옮김. 2016.『국제정치와 전략』, 서울: 한티.
최재덕. 2019. “일대일로 2.0과 중러관계의 제한성”,『평화학연구』제20권 제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2018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KRIS.
합동교범 10-2. 2014.『합동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A Study on the Changes of Sino-Russian Military Cooperation and the Impacts of North East Asia Security:

Focused on Geo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Jae-Ik Song

In the era of US-China race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China and Russia have become unusually active in military cooperation. China and Russia are not just military cooperation, but are conducting combined operational exercises and are conducting ground exercises as well as at sea and in the ai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Sino-Russian military cooperation relations amid changes i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analyze the impact of strength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on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predict changes in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in the 2020s.

Starting with the 2005 "Mission of Peace," the drill has been carried out every year or every other year, and since 2012, the combined training of the 'Joint Sea' has been held. And China and Russia are developing into multilateral combined exercises, with Mongolia and othe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Eastern-2018 drill.

In particular, China-Russia military exercises were conducted in various ways in 2019. In April, near Qingdao joint naval drills in July, and trained combined flight drill in the East Sea and East China Sea. In September, the Chinese military also participated in the "Central-2019" joint military exercise, mobilizing 128,000 Russian troops. And on July 23, Sino-Russian bombers, fighter and, AWACS came into our KADIZ without permission and, in this situation. And Russia AWACS, A-50 invaded Dokdo territorial air for 7 minutes. Korean fighter planes had a scramble out and warning shots and Japan's Air Self-defense Force fighter jets engaged in this situation. So, Korea, China, Russia and Japanese military aircraft were tangled in their 30 airplanes on the East Sea. The fact that neighboring countries conduct military exercises on the ground, at sea and in the air a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poses a major threat to security of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due to high-level military cooperation.

Keywords: China-Russia Relation, Military Cooperation, Northeast Asia Security, Geopolitics, Three Dimensions Viewpoint of Korean Peninsula